

“예래단지 협의 매수 토지 돌려줘야”

원 토지주 2명 JDC 상대 소유권 이전 소송서 승소
협의 통한 토지 매매계약 무효로 본 첫 판결 ‘주목’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이하 예래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이뤄진 토지 강제 수용절차 뿐만 아니라 토지주와 협의해 맺은 토지 매수 계약까지 무효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장창국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JD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때 잘못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토지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JDC와의 매수 협의를 통해 예래단지 계획 부지에 포함된 토지 2필지 2453㎡를 각각 2004년 11월과 2005년 6월 1억6911만원에 팔았다. 이후 이 토지는 2013년 5월 다른 토지에 합병돼 소유권등기 이전이 마무리됐지만 이들은 지난 2015년 나온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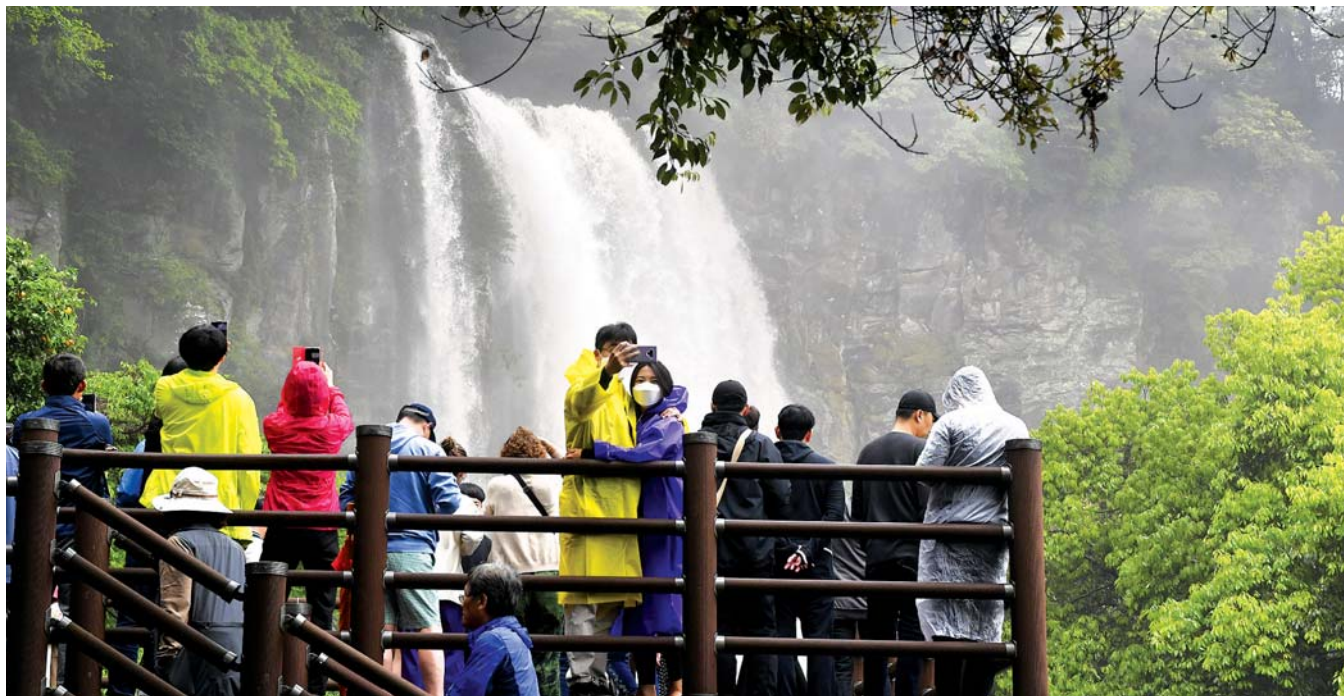
토대로 당시 맺은 계약이 무효라며 토지 반환을 요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예래단지는 옛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볼 수 없다며 당시의 인허가 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주목 받는 이유는 협의 통한 예래단지 토지 매수 방식까지 무효라고 본 첫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고 예래단지 부지 내 모든 토지주가 땅을 돌려주라고 요구하면 예래단지 정상 추진을 원하는 JDC로서는 사실상 대처할 방법이 없다.

그동안 JDC는 예래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땅을 강제수용하거나 원

토지주와 매수 협의를 맺는 방식으로 확보해왔으며, 2015년 대법원의 판결 이후 토지 반환 소송에 잇따라 휘말려 줄줄이 패소했다. 재판부는 “예래단지는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유원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라며 매번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예래단지 조성사업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에 1520실 규모 콘도미니엄과 1093실 규모 호텔, 의료시설인 메디컬센터, 휴양·문화시설인 스파 오디토리엄과 박물관, 쇼핑센터 등을 짓는 사업으로 2017년 완공될 계획이었지만 대법원 판결 후 모든 공사가 중단됐다. 이상민기자



영도폭포 배경 철락 많은 비가 내린 9일 서귀포시 영도폭포에 관광객들이 몰려 떨어지는 폭포수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이상민기자

강풍 동반 폭우에 피해 잇따라

8-9일 한라산 375mm 폭우
항공기 결항·지연도 속출

제주지방은 지난 9일 강풍을 동반한 비가 몰아치며 한라산에 40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다. 또 강풍 피해 신고가 곳곳에서 이어졌고, 제주 기점 항공편도 결항됐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0시 제주 전역에 발효된 강풍주의보가 9일 오후 4시까지 이어지면서 삼각봉에 순간최대풍속 초속 30.0m의 강풍이 불었고 뒤편세로

24.7m 세별오름 26.8m, 선흘 24.1m, 월정 21.8m, 한림에 17.8m의 바람이 불었다.

강풍과 함께 제주동부, 남부, 산지에 호우경보가 내려지면서 8일 오후 6시부터 9일까지 강수량은 삼각봉 375mm, 뒤편세로 318mm, 남원을 신례 281mm, 태풍센터 223mm, 표선 148.5mm를 기록했다.

강풍과 폭우로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9건의 안전조치와 배수 지원에 나섰다. 9일 오전 11시15분 서귀포시 남원을 위미리에서 비닐하우스가 침수돼 200t의 물을 퍼냈다. 앞서 오

전 5시에는 제주시 노형동 공사장 간이집터가 바람에 날리고, 7시 38분 에월읍 광령리에서 나무가 강한 비바람에 도로에 쓰러져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8시50분에는 서귀포시 남원을 위미리 도로상에서 폭우로 차량이 고립됐다 구조되기도 했다.

특히 윈드시어특보가 발효된 제주국제공항에는 9일 오전부터 35편의 항공기가 결항하고 42편이 지연 운항했는데, 오후 3시30분 윈드시어특보가 해제되며 항공기 운항이 정상화됐다.

또 이날 해상에 풍랑주의보로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8개 항로 14척의 여객선 중 3개 항로 7척의 운항이 전면 통제됐다. 문미숙·김현석기자

태풍 예보 ‘초강력’ 등급 신설

기상청 “폭염특보 기준도 체감온도로…”

최근 강한 태풍 발생 비율이 늘면서 태풍 강도에 ‘초강력’ 등급이 신설된다. 또 기존만으로 발표하던 여름철 폭염특보 기준이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로 바뀌면서 여름철 고온다습한 제주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날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상청은 기존과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폭염특보 기준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일 최고기온만 고려한 폭염특보 기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폭염특보 발표기준은 ‘일최고기온’에서 체감온도를 활용한 ‘일최고체감온도’로 변경한다.

기준은 폭염주의보 33℃, 폭염경보는 35℃로 현재와 같다. 그러나 같은 기온에서도 습도가 증가하면 체감기온이 함께 올라간다. 기온이 30~40℃ 범위에서 습도 50%를 기준으로 습도 10% 증감에 따라 기온은 1℃ 차이가 난다. 기온이 33℃인 경우 습도가 40%면 체감온도는 31.9℃지만 습도가 60%면 체감온도는 34℃로 달라진다.

기상청은 폭염특보 개선으로 폭염발표 횟수는 내륙지역은 평균 0.3일 감소하는 반면, 제주 등 습도가 높은 해안지역은 평균 8.6일 증가해 전국적으로는 3.7일(16.2→19.8일)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태풍 예보도 달라져 ‘초강력’ 태풍 등급을 신설한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태풍 중 ‘매우 강’ 빈도가 50%를 차지할만큼 강한 태풍 발생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초강력 태풍의 등급 기준은 최근 10년간 발생한 태풍의 상위 10%에 해당하는 중심부근 최대 풍속이 54㎞(194km/h)인 태풍이다. 이에 따라 태풍 강도 등급은 ‘중·강·매우강·초강력’으로 구분된다.

태풍 크기인 소형·중형·대형·초대형 구분은 중단한다. 소형 태풍이라도 강한 태풍이 발생할 수 있어 크기 정보로 인해 태풍의 위험성을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태풍 크기를 구분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일본은 대형과 초대형만 구분해 예보하고 있다. 문미숙기자

이태원발 여파…‘등교개학’ 또 미뤄지나

중대본 어제 브리핑 “역학조사후 방침 결정”

서울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게 진행되면서 보건당국이 ‘등교 개학’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0일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2~3일 동안 역학조사를 진행, 그 결과를 토대로 등교 개학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13일부터 고3 등교 개학이 예정돼 있는데, 아직까지 등교 시기를 조절할지에 대한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현재는 위험도에 대한 평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방침이 정해지는대로 공식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등교와 이태원을 령 감염의 영향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역학조사 초기단계라 판단이 어렵다”며 “이번 사태의 확산 추이, 학

교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1일 오전 예정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등교 수업 대책 발표’ 기자회견도 12일 오후로 연기됐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등교 수업 관련 협의의 결과를 12일 오전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에 제주도교육청의 대책도 교육부 발표가 끝난 이후로 미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에 6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13곳·중학교 7곳 등 20개 학교 가운데 3개 학교가 13일 등교 개학을 결정한 바 있다. 3개 학교는 은평·신례초등학교와 신산중학교다. 나머지 17개 학교는 18일부터 20일 사이 학생들을 등교시키겠다고 제주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송은범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엉 사랑으로

산림조합

"숲에서 미래를 보다"

조합원과 함께 숲에서 성장하는 산림조합의 미래

산주와 임업인의 풍요로운 내일을 준비하며,
희망을 나누고 사회와 함께하는 산림조합입니다.

한라일보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산림조합 임산물 대표브랜드

일반사업
 산림경영지도·산림조사
 묘지관리대행·산림사업
 면세유 지원 나무시장운영

목재집하장
 산나무 제품가공
 삼나무 방부목
 목재멜릿

임산물산지유통센터
 임산물 구매, 유통
 표고자육 공급

산림마트
 임업장비 및 목초액 판매
 표고버섯 중균 공급

신용사업
 중소기업, 임업정책자금대출
 농어촌진흥기금대출
 SJ산림조합상조상품 판매



조합장 오형욱

이사 **이용범·송복형·양상집·강승환·김동일·문승언·강유아·오경배**
 감사 **성경관·한두현**

조합원 가입방법

자격조건 산림소유자 또는 임업인
가입방법 주소지 또는 산림소재지 사업장 조합에 가입

지도·사업 TEL. 064)766-4544 / 766-4541 FAX. 064)766-4599

상호금융 TEL. 064)732-7544 FAX. 064)733-7545

산림마트 TEL. 064)739-9544 FAX. 064)739-9545

목재집하장 TEL. 064)738-5101~2 FAX. 064)738-5104

유통센터 TEL. 064)792-8544 FAX. 064)792-8545